

도시민들의 은퇴 후 귀촌에 대한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김 하 영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2
제3절 연구내용	4
제4절 연구방법	5
제2장 귀촌의 현황 및 장애요인의 원인.....	6
제1절 귀촌의 개념	6
제2절 귀촌의 배경과 현황	7
제3절 귀촌 장애요인의 원인	10
제3장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 계획	11
제1절 조사대상 및 기간	11
제2절 조사방법	11
제3절 조사결과	11
제4장 귀촌의 장애요인	17
제1절 정보의 문제	17
제2절 보건·의료 시설 부족의 문제	20
제3절 지역 주민과의 문제	22

제5장 귀촌 장애요인의 개선방안	24
제1절 귀촌 정보 확대	24
제2절 보건·의료 시설 유치와 개선	25
제3절 지역 주민과의 관계 개선	26
제4절 농촌의 편의시설과 정책 수립	27
제6장 요약 및 결론	28
참고문헌	31
부록1. 도시민의 귀촌 설문지	33

표 목차

<표1> 설문지 구성 내용	5
<표2> 연도별 귀농현황	8
<표3>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9
<표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
<표5> 귀촌 계획 여부	14
<표6> 귀촌 반대 이유	14
<표7> 귀촌 희망 이유	15

<표8> 귀촌 결정 조건	15
<표9> 귀촌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17
<표10> 귀촌 정보의 홍보	18
<표11> 귀촌 정보의 출처	18
<표12> 귀촌 정보 만족도	19
<표13> 귀촌 정보의 불만족 이유	19
<표14> 귀촌 시 예상되는 문제점	21
<표15> 도농간 의료기관 종별 기관수 및 병상수 분포	22
<표16> 도농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근무기관 분포	22
<표17> 지역주민과의 관계	23
<표18> 농촌과 도시의 인구 특성 분석	24
<표19> 지역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 참여 의사	26
<표20>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귀촌 정책.....	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개선 등으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여 평균 수명이 길게 연장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 OECD 건강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1세로 OECD 국가 평균 수명 보다 0.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사람들에게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주거지역과 환경에 관한 문제로, 최근에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은퇴 후 농촌생활에 대한 국민적 가치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농촌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은퇴 후 높은 물가와 복잡한 교통, 해로운 환경 요인들이 있는 도시에서의 거주보다는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은 농촌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인구의 유입을 통한 인구과소화 문제 해결, 농촌의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민 증가로 세금

수입의 증대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 증대 등 농촌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귀촌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귀촌 정보의 문제와 귀촌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의 불편, 보건·의료 시설의 부족, 취미·문화생활의 부족, 생활용품 구입의 어려움, 정착 지역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다.

실제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귀촌에 대한 계획과 함께 귀촌 준비 사항에서의 어려움, 귀촌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향후 농촌에서 잘 정착·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은퇴 후 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계획을 조사하여 귀촌의 장애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은퇴 후 귀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강경하·박공주·윤순덕(2006)은 "은퇴 후 귀농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은퇴 후 귀농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과 농촌 이주 전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거주실태, 영농활동 실태, 사회적 지원망, 농촌생활 인식수준 등으로 농촌 이주 후 실태를 파악하였다. 은퇴 후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문영섭(2007)은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즉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형상을 활용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공주(2006)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에 따른 이주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 이주 후 농촌생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귀농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농촌이주 준비과정,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알 수 있었고, 귀농의 유형별로 귀농자의 농촌 이주 준비 과정과 농촌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2005)는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에서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농업, 농촌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이들을 하나의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변수들이 도시 장년층의 농촌이주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것을 통해 어떤 변수를 지닌 응답자의 농촌이주의사를 잘 알 수 있었다.

윤순덕·박공주(2006)는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 분석"에서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이 있는 40세 이상 도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주에 대한 계획과 이주 시 희망하는 지역과 주거형태, 농촌생활유형, 일에 대한 태도, 영농에 대한 태도를 직접 설문조사 하여 이들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은우(1993)는 "농촌, 도시 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영향"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현상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현상들이 농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었다.

이지숙·이미애(2000)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노인인구 증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국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에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새롭게 나타나면서 대책이 요

구됨에 따라, 이미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지방에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었다.

홍성희·곽인숙(2006)은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 준비를 중심으로"에서 은퇴 후 생활문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중년층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남녀의 은퇴 후 경제적 준비, 건강준비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한경혜·김주현·강혜원(2005)은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에서 농촌마을의 생태적, 사회적 특성과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역동성을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은퇴 후 귀촌과 관련하여 이를 결정짓는 변수와 귀촌 후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 후 도시민들의 귀촌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고, 귀촌의 장애요인들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내용

은퇴 후 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귀촌의 장애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구체적인 질문사항
일반적 사항		-은퇴 후 귀촌 여부 -은퇴 후 귀촌 준비 계획
귀촌의 장애요인	정보의 문제	-귀촌 정보의 출처 -귀촌 정보의 홍보 정도 -귀촌 정보의 만족도
	보건·의료시설의 문제	-귀촌 시 예상되는 문제점
	지역주민과의 문제	-지역주민과의 관계의 중요도
개선방안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의향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귀촌 정책

제4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문헌조사는 은퇴 후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읽고 참고문헌을 정리하였다. 연구논문 외에도 학술발표, 전문지, 신문을 살펴보았으며 인터넷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21일 실시하였다.

제2장. 귀촌의 현황과 장애요인의 원인

제1절. 귀촌의 개념

귀촌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귀촌의 개념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귀농에 초점을 두거나, 귀농의 개념을 사용한 뒤, 귀촌을 부가적인 문장의 설명으로 함께 정의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과 귀촌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귀농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¹⁾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전에 농촌에 거주하고 있던 시기에 농업을 영위하였는가의 여부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과거에 농업의 영위와 관계없이,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와 경제활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²⁾

이에 비해 귀촌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³⁾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해서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종합포털 사이트에서는 귀촌을 귀농의 개념을 포함하여 주거지만 농촌으로 옮기고 도시로 출퇴근 하는 도시출·퇴근형, 주말마다 농촌에서 거주하는 전원 주말형, 농촌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노후생활형 등 도시민의 농촌 생활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 표준국어대사전(2008), 국립국어원.

2)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한국농업교육학회』 38(2) : 23-53

3) 표준국어대사전(2008), 국립국어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귀촌은 노후생활형의 한 부분으로, 도시민들이 이전에 농촌의 거주여부 또는 영농의 유무와 관계없이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찾아 농촌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본다.

제2절. 귀촌의 배경과 현황

1. 귀촌의 배경

도시민들의 은퇴 후 귀촌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농촌이 가지는 지역적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첫째, 농촌에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은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용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농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생활비가 적게 든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이던 수입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셋째, 농촌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발달하였다. 농촌은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의 발달, 유기농업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의 직접적인 생산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와 비교하여 농촌은 노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다.

넷째, 농촌은 공동체 유대감을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농촌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 오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상부상조 하는 전통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노후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2. 귀촌의 현황

최근 귀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농림부(2005)에서 발표한 귀농 현황 자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귀촌 현황을 살펴본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귀촌의 가장 큰 범위로 포함되는 귀농 현황 자료를 대신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귀농 현황은 <표2> 와 같다. 귀농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던 때는 1998년과 1999년으로 1997년 IMF 이후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 후 귀농 인구는 점차 줄어들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귀농현황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귀농 가구수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누 계 ¹⁾	5,345	7,186	13,595	17,713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23,943

주: 1) 누계는 90년부터 누적된 수치임.

자료: 농림부(2005), 귀농자료(90년대 이후)

귀농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4)한경혜·김주현 공저(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 연구」, 『농촌사회』 15(2) : 85-131

5) 강대구(2005),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농림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로 41.4%이며, 그 다음이 40대로 28.1%를 타나낸다.

특히 1998년, 1999년에는 30대와 40대의 귀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IMF 이후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이후 귀농자의 연령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30대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의 비율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귀농자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은퇴 후 농촌으로 이동한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귀촌의 한 형태인 귀농을 파악 한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정의한 귀촌현황은 조사된 비율보다 많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3>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계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20,658 (100)
29 이하	111	105	809	361	65	38	62	64	34	54	1,703 (8.2)
30~39	681	711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8,549 (41.4)
40~49	596	492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815 (28.1)
50~59	477	334	659	422	155	187	149	201	423	319	3,326 (16.2)
60 이상	195	199	175	52	28	46	62	121	200	187	1,265 (6.1)

자료: 농림부(2005), 귀농자료(90년대 이후)

제3절. 귀촌 장애요인의 원인

은퇴 후 귀촌의 장애요인으로 이웃과의 관계형성, 교통의 불편, 생활시설 부족 문제, 낮은 경제활동, 낮은 사회인식 등이 있다⁶⁾. 이러한 장애요인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의 격차이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이 실시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을 집중으로 발달하였고,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전 분야가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이것은 다시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유인하였다⁷⁾. 은퇴 후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이러한 농촌의 상대적인 낙후가 귀촌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현재까지 은퇴 후 귀촌에 대한 정책과 정보 수준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귀촌이 일어나기 시작한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10년에서 20년 앞서 귀촌이 일어났다⁸⁾.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귀촌 정책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전원 마을 조성 사업, 영농 정착금 지원,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주택 개량 사업 지원 등 많은 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6) 박공주(2006),『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 문영섭(2007),『농촌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윤순덕·박공주·강경화 공저(2006),「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농촌계획』 12(4) :63-76

제3장.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 계획에 관한 조사

제1절. 조사대상 및 기간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촌에 이미 살고 있거나 은퇴 한 사람은 제외시켰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 후, 2008년 5월 5일 대구광역시 도시민 1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전문가와의 면담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제2절. 조사방법

조사는 문헌조사를 검토한 후 설문지 작성을 하였다. 3명의 조사원에게 설문지를 배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에서 일대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의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중 인적사항을 표기 하지 않았거나, 복수 응답, 부실기재 된 5부를 제외한 115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제3절.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 총 115명의 성별, 연령별, 농촌 거주 경험

여부, 직업별, 학력별, 월 소득별 특성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71.3%, 여성이 28.7%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이 응답하였고, 연령은 50대 35.7%, 40대 32.2%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었다. 농촌 거주 경험에 관한 질문에서는 거주 경험이 있다가 55.7%, 거주 경험이 없다가 44.3%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이 26.1%, 회사원 18.3%, 전문직 17.4%, 가사 14.8%, 공무원 1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 29.6%, 대학원 이상 18.3%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명(%)
성별	남	82(71.3)
	여	33(28.7)
연령	30대	24(20.9)
	40대	37(32.2)
	50대	41(35.7)
	60대	11(9.6)
	기타	2(1.7)
농촌 거주 경험	있다	64(55.7)
	없다	51(44.3)
직업	가사	17(14.8)
	전문직	20(17.4)
	자영업	30(26.1)
	회사원	21(18.3)
	공무원	14(12.2)
	생산직	1(0.9)
	기타	12(10.4)
학력	고졸이하	34(29.6)
	대졸	60(52.2)
	대학원이상	21(18.3)
월소득	100만원 이하	9(7.8)
	100~199만원	22(19.1)
	200~299만원	23(20.0)
	300~399만원	23(20.0)
	400~499만원	15(13.0)
	500만원 이상	23(20.0)
계		115(100.0)

2. 은퇴 후 귀촌 계획 여부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귀촌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있다’가 61.8%, ‘없다’가 37.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농촌진흥청(2008.2)에서 은퇴 후 농촌생활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희망한다-67%)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5> 귀촌 계획 여부

구분	명	%
전혀 없다	21	18.3
별로 없다	22	19.1
조금 있다	44	38.3
매우 있다	27	23.5
생각해본 적 없다	1	0.9
계	115	100.0

은퇴 후 귀촌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표6>과 같이 나타났다. ‘생활·문화시설 부족’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 축소·단절’이 28.6%로 나타났다. 도시민들이 은퇴 후 귀촌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농촌의 생활·문화 시설 부족과 농촌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교류)가 축소·단절 되는 것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표6> 귀촌 반대 이유

구분	명	%
교통의 불편	1	2.4
보건·의료시설 부족	1	2.4
생활·문화시설 부족	22	52.4
가족 반대	2	4.8
사회적 관계 축소·단절	12	28.6
귀촌비용 발생	2	4.8
기 타	2	4.8
계	42	100.0

은퇴 후 귀촌을 희망 하는 이유로는 <표7>과 같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해’가 77.8%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을 위해’가 13.9%, ‘도시 삶에 대한 회의’가 6.9%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난 자연친화적인 삶이란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

하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은퇴 후에는 일을 하는 동안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해로운 환경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보내길 희망하는 것이다.

<표7> 귀촌 희망 이유

구분	명	%
자연친화적인 삶을 위해	56	77.8
건강을 위해	10	13.9
생활비 감소	1	1.4
도시 삶에 대한 회의	5	6.9
영농승계를 위해	0	0.0
기 타	0	0.0
계	72	100.0

귀촌을 결정할 때의 조건은 <표8>과 같다. 귀촌을 결정할 때의 조건으로 ‘자연환경’을 43.7%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귀촌 희망 이유가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라는 응답이 많기 때문에 귀촌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자연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생활·문화시설’이 21.1%, ‘보건·의료시설’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귀촌 결정 조건

구분	명	%
교통의 편리성	5	7.0
보건·의료시설	12	16.9
생활·문화시설	15	21.1
자연환경	31	43.7
지역주민의 특성	6	8.5
기 타	2	2.8
무응답	1	1.4
계	72	100.0

3. 귀촌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귀촌 의향이 있는 72명을 대상으로 한 귀촌 준비 계획은 <표9>와 같다. 귀촌 시기로는 ‘60대’가 63.9%로 가장 많았고, ‘50대’ 25.0%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퇴 후를 고려한 응답으로 보여진다.

귀촌 준비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31.9%, ‘2년 이상~3년 미만’이 29.2%, ‘4년 이상’이 27.8%로 준비기간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예상하고 있는 귀촌 자금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8.9%,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2.2% ‘1억원 미만’이 20.8%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 후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존의 자금’이 33.3%, ‘농업에 종사’가 31.9%, ‘서비스업’이 18.1%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자금이란 귀촌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의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는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노후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촌 후 경제활동 중에서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이유는, 노년층에게 농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나 형편에 따라 영농규모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여가가 필요할 때는 자발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⁹⁾

9) 윤순덕·박공주 공저(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 분석」, 『농촌계획』 12(2) : 37-47.

<표9> 귀촌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변수	구분	명(%)
귀촌 시기	40대	3(4.2)
	50대	18(25.0)
	60대	46(63.9)
	70대	4(5.6)
	기타	1(1.4)
	무응답	1(1.4)
준비 기간	1년 미만	3(4.2)
	1년 이상~2년 미만	23(31.9)
	2년 이상~3년 미만	21(29.2)
	3년 이상~4년 미만	5(6.9)
	4년 이상	20(27.8)
귀촌 자금	1억원 미만	15(20.8)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8(38.9)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6(22.2)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3(4.2)
	4억원 이상	10(13.9)
경제활동	기존의 자금	24(33.3)
	농업에 종사	23(31.9)
	자영업	8(11.1)
	서비스업	13(18.1)
	기 타	4(5.6)
계		72(100.0)

제4장. 귀촌의 장애요인

제1절. 정보의 문제

귀촌 정보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10>과 같이 나타났다.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으로 79.2%, 모르겠다가 12.5%,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현재 귀촌 정보가 도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촌을 계획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귀촌 정보의 수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귀촌 정보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0> 귀촌 정보의 홍보

구분	명	%
전혀 아니다	8	11.1
아니다	49	68.1
모르겠다	9	12.5
그렇다	6	8.3
매우 그렇다	0	0.0
계	72	100.0

도시민들에게 귀촌 정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표11>과 같다,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22.2%, 마스크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귀촌 정보의 출처

구분	명	%
마스크	14	19.4
관련 기관 이용	8	11.1
인터넷	16	22.2
주변의 지인	28	38.9
기 타	6	8.3
계	72	100.0

자신이 얻은 귀촌 정보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12>와 같다. 자신이 얻은 귀촌 정보의 만족도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62.0%, ‘불만족이다’가 33.8%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4.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12> 귀촌 정보 만족도

구분	명	%
매우 불만족	2	2.8
불만족	22	31.0
보통이다	44	62.0
만족	3	4.2
매우 만족	0	0.0
무응답	1	1.4
계	72	100.0

귀촌 정보가 불만족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13>과 같다.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는 응답이 45.8%, 정보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0%, 정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13> 귀촌 정보의 불만족 이유

구분	명	%
정보의 유용성	2	8.3
정보의 신뢰성	4	16.7
정보의 다양성	11	45.8
정보의 홍보성	6	25.0
기타	1	4.2
계	24	100.0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으면 귀촌 계획에서부터 귀촌 후 생활하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은퇴 후 귀촌이란 생활권을 옮긴다는 것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

하기 힘든 중·장년층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주택 구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시설의 고려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향후 거주지로써의 문제점 발생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이 정보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지 못하며 정보의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귀촌과 관련된 교육과 농지,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농어촌 종합 정보센터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¹⁰⁾,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촌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¹¹⁾

그러나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귀농 관련 정보들로 집중되어 있어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정보 제공을 위해 농어촌종합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촌 정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보건·의료시설 부족의 문제

귀촌을 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14>와

1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2005),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제70회 국정과제회의

11) 강원도 양구군-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전라북도 진안군-귀농행정종합 시스템구축, 강원도 영월군-비닐하우스 지원 등

같다. 보건·의료시설의 부족이 49.3%로 절반이 응답하였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16.9%, 취미·문화시설의 부족이 12.7%, 교통의 불편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14>

<표14> 귀촌 시 예상되는 문제점

구분	명	%
교통의 불편	8	11.3
보건·의료시설의 부족	35	49.3
취미·문화시설의 부족	9	12.7
지역주민과의 관계	12	16.9
생활용품 구입의 어려움	6	8.5
기 타	1	1.4
무응답	1	1.4
계	72	100.0

채은희 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질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라고 나타났다.

은퇴 후 노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도시와 비교해 보건·의료시설의 부족은 귀촌 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과거와 비교하여 농촌은 도로의 발달로 인해 도시와 시간적으로 가까워 졌지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의 보건·의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표15> 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귀촌 후 의료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 도농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및 병상수 분포

구분	시부			군부		
	기관수	병상수	인구천명당	기관수	병상수	인구천명당
종합전문 요양기관	42	40,951	1.1	-	-	-
종합병원	224	83,294	2.3	16	3,419	0.4
병원	616	86,304	2.3	115	17,800	1.8

자료: 보건복지부(2004),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그리고 농촌 지역은 의료기관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도시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16>을 보면, 농촌의 의료 인력은 보건기관과 의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은 도시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 또한 농촌은 의료 시설과 장비가 낙후된 곳이 많으며, 그것마저 부족한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표16> 도농 지역별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근무기관 분포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보건기관	계 ¹⁾
시부(%)	23,813 (46.9)	3,229 (6.4)	2 (0.0)	23,307 (45.9)	41 (0.9)	50,792 (100.0)
군부(%)	395 (6.5)	990 (16.3)	0 (-)	3,166 (52.1)	1,531 (25.2)	6,082 (100.0)

주: 1) 총 의사인력에 대한 시부와 군부의 비율은 89.3%와 10.7%임.

자료: 보건복지부(2004),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제3절. 지역 주민과의 관계 문제

앞의 <표14>를 살펴보면, 귀촌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보건·의료 시설의 부족 다음으로 지역주민과의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

런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도시민들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지역주민과의 관계

구분	명	%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별로 중요하지 않음	0	0.0
보통	8	11.1
약간 중요	18	25.0
매우 중요	46	63.9
계	72	100.0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관계를 비교해 보면, <표18>에서처럼 농촌은 도시와 달리, 1차적인 인간관계(인격적, 비형식적)를 맺고 있으며, 주민 의식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씨족부락이 많으며, 농촌 사람들이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18> 농촌과 도시의 인구 특성 분석

구분	농촌	도시
인간관계	1차적 인간관계 (인격적, 비형식적)	2차적 인간관계 (계약적, 형식적)
사회통제	비공식적 수단(도덕, 관습)	공식적 수단(법, 계약)
사회변동성	완만함	급속함
주민 의식	보수적, 폐쇄적	진보적, 개방적
계층성	귀족지위 강조, 계층 격차가 적고 사회이동이 적음	성취 지위강조, 계층격차가 크고 사회이동 빈번함

자료: 문영섭(2007)『농촌의 어메니티자원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p.12

따라서 이런 점들은 귀촌 후,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거나 사라진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제5장. 귀촌 장애요인의 개선방안

제1절. 귀촌 정보 확대

귀촌 정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자치 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정보종합사이트에서는 귀촌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며, 많은 도시민들이 이 사이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귀촌의 긍정적인 점을 알리고, 귀촌 정보 사이트를 홍보 한다면 사이트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귀촌 정보의 홍보만으로는 실제로 이 정보들을

이용할 중·장년층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귀촌에 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지역 공공 기관에 배치하거나, 바쁜 도시민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귀촌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면 정보에 관하여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¹²⁾

제2절. 보건·의료시설 유치와 개선

보건·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촌의 유희지와 빈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희지를 무상으로 일정기간 임대해주거나, 지역 내 폐교와 같은 빈 건물을 의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여 임대 해 주는 것이다. 의료 인력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빈집을 관사로 제공하거나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에서 의료 활동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농촌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유희지와 폐교, 빈 집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먼저 확보 한다면 귀촌 인구의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촌-일종합병원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촌-일종합병원 운동이란 농촌의 한 지역과 도시의 종합병원 한 곳을 연계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

12) 설문조사 진행 중, 군에 전화를 했으나 귀촌 정보를 얻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일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방문요청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연결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해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장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제3절. 지역주민과의 관계 개선

귀촌 후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표 19>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귀촌 전과 귀촌 후 관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표19> 지역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 참여 의사

구분	명	%
전혀 없다	0	0.0
별로 없다	1	1.4
모르겠다	7	9.7
조금 있다	42	58.3
매우 있다	22	30.6
계	72	100.0

귀촌 전에는 지역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지역 자치단체에서 도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 농가에서 일정기간 숙식을 하면서 직접 마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지역 안내 교육 한 후, 도시민에게 지역에 대해 알리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도시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귀촌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으며 안내 해 주는 지역 주민을 통해 미리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농촌 마을은 각 마을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색을 지니기도 하

기 때문에 귀촌 전 도시민들은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귀촌 후에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정착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이해하기 쉽도록 마을의 역사와 농촌생활, 현재 마을의 경제활동 등을 설명해 주고,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다양한 직업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외국어 등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가 만남의 기회를 얻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인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4절. 농촌의 편의시설과 정책 수립

이외에도 귀촌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20>과 같다. 농촌의 편의시설과 정책 수립 40.3%, 귀촌 관련 정보 확대 구축 20.8%,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안 마련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이 농업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편의시설이 가까이 확보 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 사업의 경우¹³⁾ 기존의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에 관한 지원이기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전원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자치단체에서는 개인에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편의 시설과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효과는 지역 주

13) 정부가 민간 업체와 함께 20가구 이상일 경우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을 마련해 해준 사업. 농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2005)

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귀촌 인구의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20>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귀촌 정책

구분	명	%
귀촌 관련 정보 확대 구축	15	20.8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안 마련	11	15.3
농촌의 편의시설과 정책 수립	29	40.3
농촌 노년층 일자리 제공	9	12.5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	7	9.7
기 타	1	1.4
계	72	100.0

제6장. 요약 및 결론

도시민들의 은퇴 후 귀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농촌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민들에게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시민들의 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귀촌의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언급한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귀촌 정보는 다양하지 못하고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귀촌과 정보제공 사이트를 홍보하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해 공공 기관에 귀촌 정보에 관한 소책자를 배치하여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바쁜 도시민들을 위해 귀촌 정보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귀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촌 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의 유휴지와 빈 건물, 빈집을 재건축 하여 의료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사를 제공하거나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나는 만큼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일촌-일종합병원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지역과 도시의 종합병원을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촌 지역 주민과의 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귀촌 전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앞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며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귀촌 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에서의 직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도시민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인관관계를 형성 하는데 도와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귀촌 지역의 편의 시설과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이 농업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편의시설이 가까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에서 전원마을조성 사업, 개인지원 사업, 보다

는 기존 마을의 편의시설 수립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 효과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미치며 귀촌 인구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귀촌의 장애요인을 귀촌 전과 귀촌 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지니지만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귀촌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대구(2005),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농림부
-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한국농업교육학회』 38(2) : 23-53
- 김묘정·김혜민·허준 공저(2007), 「농촌정주를 위한 도시민 농촌주택 시설 수요분석」, 『농촌계획』 13(2) : 63-74
- 농림부 보도자료(2006), 『베이비붐세대 절반이상, 은퇴 후 전원생활 희망』, 농림부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2005), 『농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제70회 국정과제회의
- 문영섭(2007),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공주(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백화종의 외 8인 공저(2004),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보건복지부
- 서규선·변재면 공저(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 7(1) : 137-153
- 손신영(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 26(3) : 601-615
- 윤순덕·강경하·박공주·이정화 공저(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 25(3) : 139-153
- 윤순덕·박공주 공저(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

- 분석」, 『농촌계획』 12(2) : 37-47.
- 윤순덕·박공주·강경화 공저(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 63-76
- 이병철(1999),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우리는 왜 귀농을 해야 하는가』, 전국귀농운동본부
- 이은우(1993),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의 실태와 영향」, 『노동경제논집』 16 : 107-129
- 이지숙·이미애 공저(2000),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노인인구증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국 중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10 : 89-113
- 채은희·이효영 공저(2006), 「농촌 노인의 건강 및 보건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6(4) : 681-700
- 한경혜·김주현 공저(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 연구」, 『농촌사회』 15(2) : 85-131
- 홍성희·곽인숙 공저(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41) : 193-207

부록.

<설문조사표- 은퇴 후 농촌 이주 희망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민의 은퇴 후 귀촌에 대한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귀촌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문이며, 연구 자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설문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8.8

1. 현재 은퇴 후 농촌으로 귀촌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있다 ⑤ 생각 해 본 적 없다
(①,②번 ⇒ 문 2) , (③,④번 ⇒ 문 3) (⑤ ⇒ 조사종료)
2. 농촌으로 귀촌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의 불편 ② 보건·의료시설 부족 ③ 생활·문화시설 부족 ④ 가족 반대
⑤ 사회적 관계(교류) 축소·단절 ⑥ 귀촌비용 발생 ⑦ 기타 ()
3. 농촌으로 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귀촌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위해 ② 건강을 위해 ③ 생활비 감소
④ 도시 삶에 대한 회의 ⑤ 영농승계를 위해 ⑥ 기타 ()
4. 귀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의 편리성 ② 보건·의료시설 ③ 생활·문화시설 ④ 자연 환경
⑤ 지역 주민의 특성 ⑥ 기타 ()
5. 귀촌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통의 불편 ② 보건·의료시설 부족 ③ 취미·문화생활의 부족 ④ 지역주민과의 관계
⑤ 생활용품 구입의 어려움 ⑥ 기타 ()

6. 귀촌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40대 ② 50대 ③ 60대 ④ 70대 ⑤ 기타 ()

7. 귀촌 준비기간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2년미만 ③ 2년이상~3년미만 ④ 3년이상~4년미만 ⑤ 4년 이상

8. 귀촌 자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① 1억원 미만 ②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③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④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⑤ 4억원 이상

9. 귀촌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매스컴 ② 관련 기관 이용 ③ 인터넷 ④ 주변의 지인 ⑤ 기타 ()

10. 귀촌에 관한 정보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촌에 관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②번 ⇒ 문 12), (③,④,⑤번 ⇒ 문 13)

12. 귀촌 정보가 불만족이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의 유용성 ② 정보의 신뢰성 ③ 정보의 다양성 ④ 정보의 신속성
⑤ 정보의 홍보성 ⑥ 기타 ()

13. 귀촌 후 경제적 활동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① 기존의 자금 ② 농업에 종사(채소, 화초, 곡식 등)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펜션, 민박 등) ⑤ 기타 ()

14. 귀촌 후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모르겠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있다

15. 귀촌 후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중요 ⑤ 매우 중요

16. 귀촌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귀촌 관련 정보 확대 구축
②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안 마련
③ 은퇴 층을 위한 농촌의 편의시설과 정책 수립
④ 안정적인 농촌 노년층 일자리 제공
⑤ 지역 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
⑥ 기타 ()

인 적 사 항

※문항에 체크바랍니다.

- 1.성 별: ①남 ②여
2.직 업: ① 가사 ② 전문직 ③ 자영업 ④ 회사원
⑤ 공무원 ⑥ 생산직 ⑦ 기타()
3.현재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기타 ()
4.농촌 거주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하(대재, 중퇴 포함) ③ 대학원 이상
6.세금 전 월소득: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199만원 ③ 200~299만원
(가족전체) ④ 300~399만 원 ⑤ 400~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대단히 감사합니다-